

응급사항 대응 지침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119와 환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응급상황을 인식하고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주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따라 현장사람들은 신속, 정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열거하는 사항에 또한 무조건적인 피해자의 병원이송이 아니라 위험지역의 환자를 접근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현장에서의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1단계

▶ 응급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제2단계

▶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아본다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사람을 생각하는 자세,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응급상황이 무엇인지를 아는것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태도는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먼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1339번으로 전화를 걸어 응급의료정보 센터와 상담합니다.
-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119번으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제3단계

▶ 구급차를 부른다

응급상황시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구급차를 불러야 할 적절한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채 일반차량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4단계

▶ 안전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다

제5단계

▶ 환자를 평가한다

환자에 대한 평가는 먼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를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6단계

▶ 환자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생명구조 활동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응급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효과가 크다. 즉 주위에 있는 사람이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다.